

임화의 ‘이식문화론’에 나타난 탈식민성

— 호미 바바의 ‘혼종성’ 담론을 중심으로

김혜원(전북대)

〈목 차〉

- | | |
|----------------------|-----------------------|
| 1. 탈식민주의 시대의 ‘이식문화론’ | 4. 임화의 ‘이식문화론’의 실제 |
| 2. ‘이식문화론’의 계보와 범주 | 5. 탈식민주의 시대의 ‘탈이식문화론’ |
| 3. ‘이식문화론’에 대한 비판 | |

1. 탈식민주의 시대의 ‘이식문화론’

탈식민주의 이론이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을 필두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례와 함께 불고 있는 탈식민주의 이론은 그 뿌리찾기에서부터 그 대안에 이르기까지 제1세계 서구와 제3세계 아프리카 학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식민 제국뿐 아니라 피식민 국가에서도 불고 있는 이러한 논쟁은 일제 식민 지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복 후 해방 공간이 다시 미소 제국주의에 의해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의 장이 되어 분단이라는 민족적 치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탈식민주의 논쟁이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지구촌화라는 미명 아래 밀려드는 현 시점에서, 후기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독점과 사회·문화적 독식의 횡포에 맞

서기 위한 탈식민주의 이론과 실천은 정당한 시대적 요청처럼 보인다. 그것은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세계는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문화적 혼종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혼종 속에서 문화적 식민 지배를 받는 ‘타자’야말로 더욱 확고한 주체적 시각을 정립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의 한가운데에 탈식민주의 이론이 있다. 탈식민주의란 자본주의를 이끄는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저항 담론이고, 탈식민주의 비평 또한 서구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해체하고 극복하려는 저항 문화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탈식민주의 시대를 맞은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먼저 재해석,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대문학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쟁을 야기해 온 임화(1908~1953)의 ‘이식문화론’이다. 임화의 문화사는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민족문화적 문학사가들에 의해 물주체적 ‘이식문화론’이라는 오명으로 불리어 왔다. 하지만 임화의 그것은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탈이식문화론’¹⁾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당시 서세동점(西勢東點)의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모색된 임화의 ‘탈이식문화론’은 오늘날 탈식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의 식민화’에 저항하여 ‘정신의 탈식민화’를 꾀할 수 있는 문화적 지침으로도 작동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근대문학사적 시각으로 ‘이식문화론’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하게 논의되고 있는 임화, 백철, 조연현의 ‘이식문화론’의 계보와 범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식문화론’을 비판하는 김윤식·김현, 조동일의 민족문화적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화의 ‘이식문화론’에 나타난 탈식민성을 통해 그 실체가 ‘탈이식문화론’임을 밝히고, 임화의 ‘탈이식문화론’과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종성(hybridity)’ 담론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것이다. 더불어 임화의 비평적 사례와 그의 실천적 삶 역시 ‘탈이식문화론’의 근거와 형성 배경으로 제시할 것이다.

물론 임화의 ‘이식문화론’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논의가 축적된 바 있다. ‘이식문화론’을 비판하는 이론가로는 김윤식·김현, 조동일, 전승주, 우리문학연구회 등이 있었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 준 이론가로는 방민호, 구중서, 한

1) ‘탈이식문화론’이란 용어는 기존의 ‘이식문화론’을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재해석, 재평가하여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다소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임화의 문화사가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붙인 용어이다.

기형, 임규찬, 신승엽, 나병철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대체로 ‘이식 문화론’의 원문 비평이거나 원문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이론적 공방이 그 바탕이었다. 최근 나병철 등은 탈식민적 관점에서 ‘이식문화론’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소 범박하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존 논의의 오류나 한계를 지적하는 논쟁적 방법에서 벗어나, 바바의 ‘혼종성’ 담론과의 유사성 차원에서 임화의 ‘탈이식문화론’의 실체와 실례와 그의 실천적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탈식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재해석, 재평가된 임화의 ‘탈이식문화론’을 탈식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적 대안으로 삼을 것이다.

2. ‘이식문화론’의 계보와 범주

흔히들 ‘이식문화론’은 임화를 기원으로 하여 백철을 거쳐 조연현에 와서 더 공고해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때 카프의 서기장으로 좌익 이데올로기의 선봉에서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자 임화, 친일 문학을 하다가 해방 후 문단 중간파 문학을 자처하면서 제3노선을 걸어왔던 백철, 우익 이데올로기의 선봉에서 서서 문단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조연현, 이 세 사람의 문학적 지형이 서로 판이했음에도 이렇게 인식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들이 문학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최종 심급으로 놓고 그것을 각각 단절과 연속이라는 차원에서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평론가들의 문학사에 나타난 근대문학의 이식과 모방, 전통과 주체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식문화론’이라는 동일한 범주에서 계보를 형성하여 다루어지게 되는 상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1. 임화의 ‘이식문화론’

후대 문학사에서 ‘이식문화론’이라고 불리게 되는 임화의 그 유명한 원전은 바로 「신문학사의 방법」²⁾이다. 임화는 1940년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

2) 『동아일보』, 1940.1.13-1.20. 발표할 때의 제목은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사의 방법』을 『동아일보』에 발표하면서, 그것이 이미 집필하여 발표 중에 있었던 『개설 조선신문학사』의 기술 방법론임을 널리 알리게 된다.

그동안 임화의 신문학사 연구는 1935년 10월 9일과 11월 3일에 『조선중앙일보』에 게재된 『조선신문학사론 서설』과, 1939년 9월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다시 『인문평론』 2권 10호에서 3권 3호까지 연재되었다가 중단된 『개설 조선신문학사』로 집약된다.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은 이인직에서 최서해까지의 문학의 흐름을 개괄한 것이고 『개설 조선신문학사』는 개화기 단계에 국한된 것으로, 이들 중 신문학사 방법론이 적용되어 본격적인 문학사 기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개설 조선신문학사』였다.

임화는 「신문학사의 방법」에서 신문학사가 추구해야 할 문제를 ‘대상’, ‘토대’, ‘환경’, ‘전통’, ‘양식’, ‘정신’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 항목인 ‘대상’에서, 신문학사의 ‘대상’을 조선의 ‘근대 문학’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문학사(新文學史)의 대상은 물론 조선의 근대 문학이다. 무엇이 조선의 근대문학이냐 하면 물론 근대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문학의 장르를 형식으로 한 조선의 문학이다.³⁾ (* 밑줄-인용자)

근대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문학의 장르를 형식으로 한 조선의 문학을 신문학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위와 같은 임화의 주장은, 곧 ‘신문학=근대문학’, ‘근대문학=서구문학’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구나 임화는 세 번째 항목인 ‘환경’에서 ‘문화 교류’ 내지는 ‘문화적 교섭’이라는 ‘문화적 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문학사=이식문화의 역사’라는 선언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문학사의 연구에 있어 문화적 환경의 고구란 것은 신문학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 부단히 영향을 받아온 외국문학의 연구다.

론』이었다.

3)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신두원,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647면.

신문학이 서구적인 문학 장르(구체적으로는 자유시와 현대소설)를 채용하면서부터 형성되고, 문학사의 모든 시대가 외국문학의 자극과 영향과 모방으로 일관되었다 하여 과언이 아닐 만큼 신문학사란 이식문화(移植文化)의 역사다. 그런 만치 신문학의 생성과 발전의 각 시대를 통하여 영향받은 제(諸) 외국문학의 연구는 어느 나라의 문학사 상의 그러한 연구보다도 중요성을 띠는 것으로, 그 길의 치밀한 연구는 곧 신문학의 태반(胎半)의 내용을 밝히게 된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학은 서구문학의 이식과 모방 가운데서 자라났다.4)

‘신문학은 서구문학의 이식과 모방 가운데 자라났다’라는 임화의 주장은 곧 일제 식민사관을 대변하는 논리로 귀착이 된다. 이러한 임화의 주장은 근대화하는 서구화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이것은 곧 한국문학의 전통을 단절시키고 그것을 서구문학에 종속시킴으로써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일제 근대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게 한다.

더구나 임화는 『개설 조선신문학사』에서 ‘신문학사의 태반(胎盤)’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제조조건이 이조 봉건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숙 발전치 못한 것은 불행히 조선 근대사의 기본적 특징이 되었다.”5)면서 ‘자주적 근대화 조건의 결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내부의 ‘자주적 근대화 조건의 미비’라는 임화의 지적은 곧 일제 식민지배 당국의 관학자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임화의 견해가 조선은 내발적으로 근대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였으므로 일제의 도움에 의해 그 발전 방향이 이끌어져야 한다는 식민 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같은 임화의 주장은 한국사의 본질은 타율성론과 후진 정체성론이 근간을 이룬다는 일제의 관학자들뿐 아니라, 아시아적 정체성론을 펴기도 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여겨졌다. 곧 그것은 아시아는 사회 구성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역사 발전에서 정체성을 먼저 못하였다는 아시아적 정체성론과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정체성 논란에서 결국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고 있던 임화는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에서 봉건적 사회구성체라는 것을 끌어오고 여기에 다시 당시

4) 앞의 책, 653면.

5)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규찬, 『문학사』, 소명출판, 2009, 22면.

일본 식민지 지배당국의 관학자들의 조선사에 대한 시각인 조선 사회의 후진 정체성론을 끌어와 접합시킨 것이⁶⁾ 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 이식의 대리인으로 ‘이식문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2.2. 백철의 ‘이식문화론’

임화의 『개설 조선신문학사』에서 기원한 ‘이식문화론’은 백철의 『신문학사 조사』와 『국문학전사』로 이어지게 된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과는 거리를 두고 문학사 집필에 전념하던 백철은 1948년 수선사판 『조선신문학사조사』와 1949년 백양당판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을 출간하게 된다.

이때 백철은 자신의 문학사적 기술 방법론으로 사조사(思潮史)를 채택한다. 브란데스(M. C. Brandes)의 『서양문학사조사』를 본떠서 기술하였다는 그 자신의 고백대로, 그의 『조선신문학사조사』는 문예사조적 문학 이해 방식을 한국 근대문학사에 적용한 것이었다. 즉 작품 분석에서 시작한 문학사가 아니라 서구의 사조사적 경향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추적하는 데서 출발한 문학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백철의 문학사 방법은 서구의 근대 문학사조를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문학의 사조사적 변이를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백철의 입장에서 조선신문학은 당연히 서구의 ‘모방문학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신문학사조사』의 「서설 근대사조와 신문학」에서 백철이 조선의 신문학사를 ‘모방문학사’로 파악함으로써, 그것은 ‘신문학은 서구문학의 이식과 모방 가운데 자라났다’라고 선언한 임화의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또한 백철은 조선은 근대 사조를 받아들일 초입부터 우리 민족사의 후진성으로 그 봉건사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아시아적 정체성론을 주장하기 위해, 임화의 논리를 그대로 좇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인용함으로써 임화의 ‘이식문화론’을 더 강화시켜 놓기에 이른다.

이 학설의 계통을 받아 林○는 《신문학사》 序論 중에서 한국의 근세적인

6) 성기조, 「한국근대문학의 전통논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51면.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林和 인용 생략> 그리고 林○는 이 특수성을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 국한된 사정이 아니고 원시사회 붕괴와 고대사회 탄생의 非典型性 以來의 아시아의 한 숙명적인 停滯性이라 설명하였다. 한국의 그 특수성이 과연 林○의 말과 같이 원시사회 이래의 停滯性的 蓄積에 의한 것인지는 우선 따를 수밖에 없으나, 하영든 한국의 封建史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고……7)

더구나 백철은 ‘모방문학’으로서의 조선의 신문학이 “유럽의 근대문학이라는 풍부한 풍경과 비교하면, 한국의 신문학은 너무도 빈약한 풍경이다.”8)라고 하면서, 우리 신문학을 서구의 것보다 더 낙후되고 열등하고 빈곤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백철은 임화가 드러내지 않았던 문화적 열등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문화적 식민성을 표면화하는 문학사를 기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백철은 1950년대 후반 전통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때, 우리 근대문학은 서구문학의 모방문학으로 서구와 같은 충분한 시기를 거쳐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축되고 축소되었다는 자신의 ‘전통단절론’을 열른 ‘전통계승론’으로 바꿔 놓는다. 현재 위축되고 기형화된 우리 문학은 과거 우리의 전통 문학과 단절되어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에 눈을 돌려 전통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게 수정된 백철의 주장이었다.

더구나 백철은 1957년 이병기와의 공저인 『국문학전사』를 쓰면서 기존의 자신의 문학관을 수정하여, 우리 문학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모방기-전통부흥기-세계적 수준으로의 비약기’라는 3단계를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대문학은 서구문학의 모방문학이기 때문에 그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찾아내어 부활시켜야 한다는 ‘전통부흥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문학사조사』에서 내세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백철의 ‘전통부흥론’은 실은 시대적 조류에 편승한 기민한 행보였다. 임화가 『신문학사의 방법』에 ‘전통’을 설정하여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문학에서 ‘전통’의 사례들을 찾아냈던 것과는 달리, 전통을 도외시했던 백철의 이 같은 행보는

7)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003, 18-19면.

8) 앞의 책, 17면.

1950년대 후반부터 각 학계에서 일기 시작한 전통 논의에 부응한 결과였던 것이다. 즉 『국문학전사』를 쓸 무렵의 국사학계 및 국문학계에서는 일제 식민사관이었던 우리 역사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내발적인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백철은 이들의 논의에 맞추어 ‘전통단절론’에서 ‘전통계승론’ ‘전통부활론’으로 그 노선을 옮겼던 것이다. 그 결과 백철의 전통에 대한 지지는 일제 식민지배 상황에서의 ‘전통’의 역할, 식민문화 혹은 외래문화와의 교섭 과정에서의 ‘전통’의 의의에 대해 인식했던 임화와는 다른 것이었음에도 임화의 그것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2.3. 조연현의 ‘이식문화론’

조연현이 동인지 중심의 문단사 문학사인 『한국현대문학사』를 기술한 것은 1955년 6월부터 1956년 12월까지였다. 그는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인과적 구성이라는 역사적 관계를 해체하고 편년체 연대기적 배열이라는 문학사적 시대 파악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조연현이 해방 직후 문학가동맹에 대한 청년문학협회의의 기수였고 이후 문인협회의 중추적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학적으로 대립하였던 진보사관 즉 계급주의적 문학사 기술 방법론에서 벗어나 문학을 현실과 분리된 각도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좌익 문학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순수문학적 입장을 흑백논리처럼 주장해 오던 조연현은 우익 민족주의 문학 진영이 좌익 계급주의 문학 진영에 의해 어떻게 유린당했고 우리 문학이 어떠한 분열상을 드러내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한국현대문학사』 집필의 목표로 삼게 된다. 더불어 그는 서구 편향적인 입장에 서서 서구적 요소가 한국문학사에 어떻게 수입되고 정착되었는가를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 韓國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近代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韓國의 現代인 과정도 따지고 보면 구라파의 近代인 과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韓國의 近代인 과정은 그 출발과 함께 구라파의 現代인 과정과 교류되었기 때문에 韓國의 近代史的 과정은 韓國의 現代史的 과정이기도 하다.⁹⁾

한국에는 근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구라파의 근대화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조연현의 발언은 곧 서구의 외래 요소에 의해 우리 문학이 발전하였다는 ‘이식문화론’ 또는 ‘모방문화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로 인해 조연현은 임화와 백철의 계승자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더구나 조연현은 민족문학이라는 각 민족의 특수성 자체는 외면해 버린 채, 문학의 형식적 순수성 그리고 보편적 미의식의 추구라는 예술지상주의적 태도를 그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반영하였다. 주지주의, 모더니즘, 신심리주의 등의 새로운 기법으로의 변화를 기술함으로써, 서구 근대적 문예사조를 표방하고 서구의 현대적 기법을 수입하여 정착시켰기 때문에 우리 문학의 형식이 세련되어진 것이라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즉 『한국현대문학사』는 동인지적 문단사를 서구 형식의 근대 문예사조사로 해석하여 기술한 것이었다.

한편 조연현은 서구편향적인 ‘모방문화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전통계승론’이라는 전통 논의에도 관여하게 된다. 하지만 조연현의 전통 논의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한 현상에서 출발하여 민족사라는 개별사의 특수성에 논의의 귀결을 두는 기존의 전통론자들과는 달리, 현대사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인식에서 모색된 것이었다. 그는 현대는 전통적 가치나 권위의 동요로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인류가 불안한 시대에 처하게 된 것이라 하면서, 전통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확대시켜 놓는다. 또한 전통을 인류사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면서도 그 구체적인 면모는 민족적 특성 위에 둔다고 말한다.

전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며 각 민족의 전통은 이미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조연현의 전통관은 전통의 범주를 개인의 차원에서 민족의 차원, 세계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통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라는 그의 주장의 기저에는 전통은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즉 전통이란 민족의 보편적 특성으로 구현되는 것이지, 시류적으로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다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이

9)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56, 20면.

러한 전통관은 문학의 현실 개입 배제라는 원칙론과 순수문학적 비평관을 갖고 있었던 조연현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3. ‘이식문화론’에 대한 비판

임화, 백철, 조연현이 ‘이식문화론’이라는 동일한 계보를 갖게 되고, 특히 임화가 몰주체적 ‘이식문화론’의 선구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은 후대 비평가들이 근대라는 거대 서사와 민족 담론이라는 틀 속에 이들을 몽땅그려 재단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식민 사관을 청산하기 위해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근대사 연구가 국사학계의 관심사였던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국문학계 역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했던 것이다. 특히 김윤식·김현은 문학사를 집필하면서 전통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고, 따라서 전통문화와 이항대립적인 요소로 보이는 이식문화 혹은 모방문화를 적결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조동일 역시 전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이식문화론자들을 서구주의자로 몰아 공격하였다. 이처럼 민족문화의 주체성에 입각하여 ‘이식문화론’을 비판한 김윤식·김현과 조동현의 민족문화적 입장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3.1. 김윤식·김현의 ‘이식문화론’ 비판

‘이식문화론’을 비판하고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근대문학은 우리 문학 고유의 전통 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주장한 이는 김윤식·김현이었다. 이들에게는 한국문학의 전통을 부인하고 한국 근대문학이 서구 문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이식문화론자이고 전통단절론자였다. 그러므로 김윤식·김현 공저의 『한국문학사』에서 임화, 백철, 조연현의 문학사는 곧바로 극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윤식과 김현이 『한국문학사』를 기획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고, 그것이 발표된 것은 1972년 『문학과 지성』 봄호에서 1973년 겨울호까지였다. 이때 이들의 문학사는 문학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식문화론자들의 입장을 적결해

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즉 김윤식과 김현은 이전까지 한국문학 인식의 기본 틀이 되어 온 ‘이식문화론’의 극복을 전제로 하여, 우리 문학이 이식문화론자들의 문화적 열등의식이나 문화의 주변성에 대한 심리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윤식과 김현은 『한국문학사』 제1장을 ‘방법론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과거 문학사에는 임화로 대표되는 서구 취향적 태도, 식민지성, 주변 문화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문학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야 한다’는 소제목 아래 임화의 『신문학사의 방법』을 직접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임화의 이식 문화론은 경제학계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 즉 정체성과 크게 어울리는 개념이다. 그것은 향보편(尙普遍) 콤플렉스의 직절한 발로이며, 동시에 한국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다. 그는 이식 문화론을 통해 한국 문학이 근대 정신에 투철해 줄 것을 바란 것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의 전통 단절론은 그러한 임화의 희망이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비판적 노성(怒聲)이다. 새로운 문화의 이식에 의해 탁월한 문학이 산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이제 조선의 잔영(殘影)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전통은 단절되었다는 비극적 상황 인식이 행해진 것이다.¹⁰⁾

더불어 김윤식과 김현은 서구 지향적인 ‘이식문화론’과 ‘전통단절론’의 파행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문학이 서구적인 문학 장르를 채용하면서부터 형성되고 문학사의 모든 시대가 외국 문학의 자극과 영향과 모방으로 일관되었다 하여 과언이 아닐 만큼 신문학사란 이식 문화의 역사다”라는 임화의 발언을 예로 들어 채용, 이식 문화 등의 어휘가 반발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화가 이식되었다는 이들의 생각 때문에 전통 역시 단절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 아래 구라과 문화를 완성된 모델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문화 간의 관계는 주중 관계에 의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굴절이라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10)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9, 28면.

즉 문학적 진보란 무조건 서구적 양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내세워, ‘근대화는 곧 서구화’라는 단순한 논리로부터 탈피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3.2. 조동일의 ‘이식문화론’ 비판

김윤식·김현보다 전통에 대한 의식이 더 뚜렷했던 조동일 역시 임화의 문학사를 강하게 비판한다. 조동일은 1950년대 후반에 행해진 한국 문학의 전통 논의로부터 문학 연구를 시작한 문학사가였다. 불문학도였다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식민지 시대 이전의 문학 연구에 종사하게 된 조동일이 그 실증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한국문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 1982년에 제1권이 간행된 『한국문학통사』였다.

국문학연구는 외롭고도 고난에 찬 길을 걸어야만 했다. 민족문화를 말살하고자 하는 책동에 맞서서 우리 것의 의의를 입증하는 사명을 맡아나서는 것만 해도 힘에 겨웠는데, 문학이라면 으레 서구문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문학을 통해서 국문학을 전개하려는 작업 또한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운 정도로 성실한 노력이었지만 열등의식을 시인하고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¹¹⁾

국문학계에 붙었던 전통 논의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조동일 역시 과거 전통 논의에 대한 비판을 그 자신 문학사의 출발점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그는 전통은 전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인 측면과 특수한 측면의 통일적 결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오를 과거의 전통 논의가 범했다면서, ‘전통단절론자’들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시작한다.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보편성만을 주시하여, 우리 문학이 중국문학을 추종하였든지 서양문학만을 추종한다든지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동일은 과거의 전통 논의에는 전통이 사회 발전 변모에 따라 형성 변모되고 동시에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서구주의자들의 이론적 기반을 공격한다. 물질적 기반의 변모를 들어

11) 조동일,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여름호, 1966.

문학의 서구화를 설명하는 서구주의자들의 방식이 편협한 결정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임화의 ‘이식문화론’을 식민사관과 유물사관이 결합된 역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4. 임화의 ‘이식문화론’의 실체

임화의 문학사를 ‘이식문화론’과 ‘전통단절론’으로 규정한 김윤식·김현과 조동일의 시각은 민족문학이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은 우리 문학의 전통과 근대문학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명목 아래 ‘이식문화론’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한다는 이유로 임화의 본의를 왜곡하여 우리 문학사에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임화의 문화사는 결코 이식문화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식민문화, 이식문화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문화사였다. 따라서 임화의 비평적 사례와 그의 실천적 삶을 근거로 ‘이식문화론’에 나타난 탈식민성을 검증하고, 그것을 호미 바바의 ‘혼종성’ 담론과 비교함으로써 그 실체가 곧 ‘탈이식문화론’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4.1. 임화의 ‘이식문화론’에 나타난 탈식민성

임화가 ‘이식문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이식문화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윤식·김현이나 조동일의 주장대로 임화의 주장이 ‘이식문화론’이었다면, 그것은 아세아적 정체성에 근거한 서구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숭배로만 일관했을 것이다. 하지만 임화는 서구 자본제의 동점이 없었다면 조선 역시 자체적, 자발적, 내재적인 근대화를 진행시켜 근대 사회로 전화되었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임화가 아세아적 정체성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 서구 자본제의 동점(東漸)이 없이 장구한 동안 동양 혹은 조선 봉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먼 장래에 독자적으로 근대 사회로의 전화를 수행했을지도 모른다.¹²⁾

이러한 서세동점의 시대사 앞에서 문화 이식에 저항하기 위하여 임화는 『신문학사의 방법』에서 신문학사가 추구해야 문제로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에 ‘전통’을 설정해 놓았다. ‘이식문학론’을 주장하였다는 임화가 ‘이식’과 대립 관계에 있는 ‘전통’이라는 요소를 문학사 기술의 기본 고려 항목으로 고려해 놓은 것은 ‘이식’과 ‘전통’이 ‘정-반-합’의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문화 창조’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전통’ 항목에서 임화는 ‘문화 교섭의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접 문화의 압도적 영향에 생성되어 발전한 신문학사, 다시 말하면 이식문화사(移植文化史)로서의 신문학사가 조선의 고유한 전통과 교섭을 가졌다는 것은 일견 심히 기이한 일 같다. 그러나 문화의 이식, 외국문학의 수입은 이미 일정 한도로 축적된 자기 문화의 유산(遺産)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¹³⁾

더불어 임화는 이식문화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재적으로는 이식문화사 자체를 ‘해체’하려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이식문화의 형성기에는 외래문화가 주체가 되고 문화 유산(전통)은 부정될 객체로 화하는 듯하지만, 결국 문화의 교섭이란 문화 유산(전통)이 외래문화보다 주체적인 위치에 서서 그것을 흡수하고 섭취하는 능동적인 관계임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문화 이식이 고도화될수록 ‘문화 창조’가 내부적으로 성숙한다는 이론이었다. 이는 앞서 말한 ‘이식’과 ‘전통’, 외래문화와 고유문화를 통한 ‘정-반-합’의 변증법적 지양으로서의 바로 그 ‘문화 창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래문화의 수입이 우리 조선과 같이 이식문화, 모방문화의 길을 걷는 역사의 지방에서는 유산은 부정될 객체로 화하고 오히려 외래문화가 주체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가? 바꿔 말하면 외래문화에 침닉(沈溺)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것이 완전히 수행되기는 문명인과 야만인과의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동양 제국(諸國)과 서양의 문화 교섭은 일견 그것이 순연한 이식문화사를

12)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규찬, 『개설 신문학사』, 『문학사』, 소명출판, 2009, 25면.

13)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신두원,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2009, 656면.

형성함으로 종결하는 것 같으나, 내재적으로는 또한 이식문화사 자체를 해체하려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즉 문화 이식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반대로 문화 창조가 내부로부터 성숙한다.¹⁴⁾

이 경우에 있어 고유문화라는 것은 외래문화에서 부정되고 있는 과거의 문화, 그 유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외래문화와 고유문화의 유산의 교섭이 인간을 매개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위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런데 행위자의 지향은 문화 의향(意向)만이 아니다. 그들의 계층적 성질, 혹은 그들의 실질적 기초가 제약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물질적 지향이 외래문화와 고유문화와의 문화 교류, 문화 혼화(混和)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형태와 본질을 안출(案出)한다. 그러므로 문화 교섭의 결과 생겨나는 제3의 자(者)라는 것은, 그실(實) 그때의 문화 담당자의 물질적 의욕의 방향을 좇게 된다. 그 의욕은 곧 그 땅의 사회 경제적 풍토다.¹⁵⁾

이어서 임화는 외래문화와 고유문화의 문화 교류나 문화 ‘혼화(混和)’, 즉 ‘문화 창조’에 이르는 과정이 인간 ‘주체’를 매개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식문화에서 ‘문화 창조’에 이르는 과정은 사회 경제적 ‘토대’에 근거한 인간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화가 말하는 ‘이식’이란 ‘주체’적 매개가 결여된 외래문화의 일방적인 이입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외래문화와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임화의 ‘이식문화’란 이식의 ‘해체’와 극복 과정, 그리하여 전통의 부활과 ‘주체’적이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일컫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토대への 관심은 단순히 사회사에 대한 배려든가 혹은 문학과 사회와의 교섭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역사란 것을 매개로 택하게 된다.¹⁶⁾

토대への 관심은 그러므로 신문학을 새로운 정신문화의 일 형태로 이해하기

14) 앞의 책, 656면.

15) 앞의 책, 657면-658면.

16) 앞의 책, 652면.

위한 기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형성 없이 신문학은 형성되었을 리 만무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은 봉건적 사회관계의 와해와 시민적 사회관계의 형성을 표현하는 관념 형태다.¹⁷⁾

나아가 임화는 ‘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 유산(전통)과 외래문화의 교섭은 사회 경제적 풍토라고 하는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임화의 ‘토대’는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토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역사의 발전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적 유물론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규정되는 사회 경제적 물질적 ‘토대’ 구조는 모든 예술·종교·문화·법·도덕 등과 같은 사회적 의식 형태로서의 상부구조의 형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화는 이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와는 달리, ‘시대정신’이 ‘토대’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였다. 즉 상부구조에 속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요소를 오히려 ‘토대’에 적용함으로써 마르크스적 문화사관의 논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단순한 유물 변증법을 넘어선 임화의 ‘시대정신’에의 관심은 결국 새롭게 창조된 정신문화로서의 신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임화는 자칫 서구 문화의 이식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통’의 유무에 의해 또는 ‘시대 정신’의 여하에 따라 서구 문화의 침략에 대응하여 저항할 수 있는 역동적 차원에서 문화 현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식’과 ‘전통’, 외래문화와 고유문화가 어떻게 교차 관계를 맺어가며 ‘주체’적이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문학을 논했던 것이다.

결국 임화의 ‘이식문화론’은 일제 식민사관을 대변하여 우리 문학을 서구 문화의 이식사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임화에게 ‘이식’이란 외래문화에의 침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이처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임화의 탁월한 탈식민주의적 인식 때문이었다. 임화의 ‘이식문화론’의 실체는 식민문화, 이식문화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탈이식문화론’이었던 것이고, 이는 또한 오늘날 후기 식민주의 극복의 가능성, 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7) 앞의 책, 651면.

4.2. 임화의 ‘탈식문화론’과 바바의 ‘혼종성’ 담론

임화의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기초는 서구화와 세계화를 냉철하게 파악한 객관적 시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앞서 보았듯, 임화는 ‘이식’의 연원을 ‘때 이른 서구 자본제의 동점’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서구 자본제의 동점’을 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를 동일한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로 인하여 ‘폐쇄적 독존을 허락하는 것’보다는 ‘수입과 이식으로 근대화될 운명’을 택하려 하였다. 더구나 임화는 이미 ‘상업과 화폐에 의한 모든 지방의 세계화’라는 현상, 즉 자본주의의 맹아를 정확하게 읽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더구나 근대사회는 결코 한 국가나 지방의 폐쇄적 독존(獨存)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과 화폐에 의한 모든 지방의 세계화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

요컨대 동양 제국(諸國)은 내부 조건이 미처 성숙치 못하고 시기가 상조(尙早)한 채로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 제국은 공통으로 서구 근대사회의 촉발(觸發)과 수입과 이식으로 근대화될 운명 아래 놓여 있었다.¹⁸⁾

위에서 보듯 임화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되는 순간 ‘이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소여’가 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업과 화폐에 의한 모든 지방의 세계화’ 현상은 ‘수입과 이식으로 근대화될 운명’을 불러들여, 결국 세계는 문화의 ‘혼화’의 양상을 띠게 됨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한 ‘혼화’를 임화는 아래에서 ‘제3의 자’로 말하고 있다. 새로운 정신문화나 문학은 외래문화와 고유문화가 ‘혼화’되는 가운데, 문화 유산과 단절된 외래문화나 그와 대립되는 순수한 민족문화와는 구별되는 ‘제3의 자’로서 창조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신문화나 문학이 생성 발전하는 데 여건의 하나로서 제출되는 유산이라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문화적·문학적 환경의 하나

18)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규찬, 『개설 신문학사』, 『문학사』, 소명출판, 2009, 26면.

로 생각할 수가 있다. <중략> 유산은 그것이 새로운 창조가 대립물로서 취급할 때도 외래문화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향한다. 그러한 때에 유산은 이미 객관적 성질을 상실한다. 즉 단순한 환경적인 여건의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발되며 환경적 여건과 교섭하고 상관(相關)한 주체가 된다. 이러한 것이 항상 한 문화 혹은 문화이 외래의 문화를 이입하는 방식이며,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좋은 의미이고 나쁜 의미이고 간에 양자의 교섭의 결과로서의 제3의 자(者)를 산출하는 방향을 걷는다.¹⁹⁾

이처럼 ‘제3의 자’로서 문화가 ‘혼화’될 때 민족적 ‘주체’성을 되찾게 된다는 임화의 ‘혼화’는 호미 바바가 말한 ‘혼종성’이라 할 수 있으며, ‘제3의 자’는 바바가 ‘제3의 공간’이라고 불렀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신문명과 고유문화의 ‘혼종성’이 나타나는 지점, 곧 호미 바바의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가 바로 임화의 ‘제3의 자’인 것이다.

바바에 의하면, 서구문명은 토착문화를 ‘부인(disavowal)’하고 피식민자를 문화적으로 동일화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동일성의 지배는 문화적·물질적 ‘차이’에 의해 결국 ‘연기’되고 만다. 바바는 동일성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려는 역사적 운동인 ‘차연(differance)’에 의해 생겨난 분열의 틈새에 ‘혼종성’으로서의 새로운 문화적 생성이 투입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혼종성’으로서의 신문화의 창조는 ‘부인’을 통하여 식민주의적인 문화적 지배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바가 말한 ‘혼종성’ 이론의 요체이다.

혼성성은 식민지 권력, 그 변환의 힘과 고착성에 포함된 생산성의 기호이다. 그것은 부인을 통한 지배의 과정(즉, 순수하고 원래적인 권위의 정체성/동일성을 확실하게 하는 차별적인 정체성/동일성들을 생산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역전시키기 위한 명칭이다.²⁰⁾

따라서 임화의 ‘이식-부정-해체’는 이러한 바바의 ‘혼종-부인-차연’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로써 ‘혼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화의 ‘이식-전통-문화

19)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신두원,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656면.

20)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225-226면.

창조'의 변증법은 바바의 '혼종성' 이론과 유사해진다. 외래문화를 '이식/혼종'하는 것은 고유문화를 과거의 유물로 '부정/부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식/혼종'의 문학사는 결국 '해체'되고 '차연'되고 마는 것이다. 앞서 임화가 말한 '문화 이식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문화 창조가 내부로부터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이식/혼종'이 결국 그것을 '미끄러뜨리고' '해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임화와 바바의 논의는 각기 다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임화의 '이식-전통-문화 창조'의 변증법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유물론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 바바의 '혼종성' 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반을 둔 포스트모더니즘적 탈식민주의 이론 위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임화의 '혼화'의 경우 '이식'과 외래문화는 '전통'과 고유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모색된 것으로, 그것은 '정-반-합'의 유물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주체'적인 '문화 창조'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에 바바의 '혼종성'은 임화가 의식했던 문화 상대주의나 상이한 두 문화 간의 계보와 정체성 문제를 넘어서 있다. '혼종성'은 프로이트의 양가성(ambivalence)을 이용하여 두 문화 간의 동일화와 탈중심화, 즉 똑같지는 않지만 빼닮음으로써 식민 제국 자체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었다. 교활한 공손함(sly civility)으로 흉내내기(mimicry)를 하지만 결국 식민 주체를 교묘하게 전복시키는 전략적 전유로서의 '혼종성' 담론이었던 것이다.

'아주 똑같지는 않은/하얏지는 않은'의 양가성의 세계에서, 그 제국 본토의 욕망의 주변부에서, 서구세계의 '기반이 되는 대상들'은 식민지 담론(현존의 부분적 대상들)의 변칙적이고 일탈적인 '뜻밖'에 습득된 대상들이 된다. 서구의 몸과 책이 자신의 현존의 부분적 대상들(재현으로서의 식민지 담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²¹⁾

하지만 줄곧 논의해 왔듯, 임화와 바바의 이론은 식민주의를 극복한 주체적 문화 창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겹치고 있다. 서구 중심주의나 민족 중심주의의 문화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21) 앞의 책, 191면.

점에서도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이론은 모두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지한 내재적 발전론이나 서구 중심주의의 문화 사조, 그 양자를 동시에 넘어서서 제3세계 근대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선구적인 시도였으며, 식민 문화에 대한 대항으로서 모색된 탈식민주의적 저항 담론이었던 것이다.

4.3. 임화의 ‘탈이식문화론’과 비평적 사례

임화는 ‘탈이식문화론’에 입각하여 우리 문학에 나타난 문화의 ‘교섭’과 ‘혼화’로서의 ‘제3의 자’, 바바 역시 강조한 ‘교섭(negotiation)’과 ‘혼종성’의 사례를 여러 논문에서 개진한다. 임화가 『신문학사의 방법』의 ‘대상’에서 한문문학을 조선문학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문화의 ‘혼화’ 현상에 대한 비평적 통찰 때문이었다. 당시 이광수가 한문문학을 조선문학의 범주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임화는 “문학은 언어 이상의 것, 하나의 정신문화인 점을 생각할 때, 한문으로 된 문학은 조선인의 문화사의 일 영역인 문학사가 가운데 당연히 좌석을 점령치 아니할 수가 없”²²⁾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는 조선에 있어서 근대정신의 선구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이 한 학자들에 의하여 썩어지고, 언문소설의 선구가 역(亦) 지나(支那)의 한문소설의 수입이나 또는 전래 설화를 한문으로 소설화한 데서 비롯함을 볼 제, 신문학사가 제 대상의 한 영역으로 당연히 한문문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직접의 대상은 아니라도 간접의 대상으로서…….²³⁾

알다시피 한자는 한사군의 고조선 점령과 함께 ‘이식’된 대표적인 외래문화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한자를 빌려 향찰, 이두, 구결이라는 ‘혼종’의 언어를 창안하였고, 한자와 함께 수용된 한문 문화를 주체적인 문화로 소화해 내었다. 따라서 임화는 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실학, 한문소설의 영향으로 태동한 언문소설 등의 문화의 ‘교섭’과 ‘혼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신문학사의 ‘대상’에 한문문학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22)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신두원,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649면.

23) 앞의 책, 651면.

또한 임화는 『개설 신문학사』의 ‘신문학의 태생’에서 신문학사 초기의 문학 적 산물로 ‘정치소설과 번역문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과도기 문학의 선 구는 새로운 조선의 정치적 이상을 선전하고, 깨우지 못한 민중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직접적, 또한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치소설에서 시작한다”²⁴⁾면서, 이 러한 정치소설의 대개가 번역 아니면 번안서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번역문학을 정치소설과 동 항목 중에 이야기함은 외국문학이 특히 정치소설로 많이 번역된 때문이라기보다도 통틀어 공리적 목적으로 수입됨이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후진국의 개화기에 있어서의 특징이기 때문이다.²⁵⁾

조선 근대화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사회적 이익 때문에 그 수입이 가능했음을 말하면서 번역문학의 유래와 계통과 공적을 탐색한 임화의 생각 은 바바가 강조한 ‘번역(translation)’의 문제와 연관된다. ‘홍내내기’가 제국의 문화를 잡종으로 만들어 제국의 문화 지도를 바꾸는 저항의 전략이듯, ‘새로 움이 세계로 투입하는 방식’으로서의 ‘번역’ 또한 원본 자체를 교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창작이라는 담론에서 보면 당시 대중들을 열광시 킨 번안소설들은 원전을 모방한 표절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독자는 ‘공리적 목적으로 수입’된 바로 그 정치소설을 통해 식민 지배 담론에서 일탈하여 그 것에 저항하고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탈식민적 욕구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임화는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장편소설 『금색야차(金色夜叉)』를 번안하 여 1913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었던 조중환의 신파소설 『장한몽』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장한몽』은 그 신드롬으로 극단 유일단과 혁신단에 의해 신파극 <장한몽>으로 공연되고 다시 영화화되면서 신파의 대 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이처럼 ‘수일’이 ‘순애’가 ‘춘향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기억된 것이 독자들의 이상을 반영하여 훌륭한 전형적 인물을 창조한 데 있었다고, 임화는 그의 『위대한 낭만정신』에서 말하고 있다.²⁶⁾ 식민 지배 담론을 유포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기획되어 이식된 번안소설이었지만, 아이

24)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규찬, 『개설 신문학사』, 『문학사』, 소명출판, 2009, 141면.

25) 앞의 책, 154면.

26)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신두원, 『위대한 낭만정신』, 『문학의 논리』, 2009, 37-38면.

러니컬하게도 <장한몽>은 식민지 ‘타자’였던 민중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이상’대로 각색되고 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신뢰는 문화의 전이와 ‘혼화’를 이루어가면서 탈식민적 역할을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영화배우이자 영화사가였던 임화는 1941년 『조선영화론』에서 조선영화 역시 외국영화를 모방함으로써 영화예술을 조선의 토양에 ‘이식’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영화발달소사』에서 1926년 일본의 자본에 의해 나온 규 감독, 각본, 주연으로 만들어진 영화 <아리랑>이 “그 시대를 휩싸고 있는 시대적 기분이 영롱히 표현”된 것이며,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단순한 조선의 인상, 풍경, 습속 이상의 것을 맛보는 만족을 얻었다”²⁷⁾고 평가한다. 박래품으로 조선에 이식된 영화였지만, 임화의 시각에서 보면 <아리랑>은 외래문화와 고유문화와의 이질적 틈새 속에서 문화의 ‘혼화’를 이룬 경우였다. 더구나 정신병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아리랑>은 겹벌과 탄압이라는 조선총독부 영화정책의 틈새에서 그 의도된 모호성(ambiguity)으로 ‘시대적 기분’을 반영해 가면서 탈식민의 항일민족영화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4.4. 임화의 ‘탈이식문화론’과 실천적 삶

탈식민이라는 시대성을 가장 예리하게 선취하고 ‘문화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망하여 문학사 연구와 문학 비평을 개진해 온 임화의 비평적 안목은 사실 상 식민 제국주의에 예속되지 않으려 부단히 모색했던 임화의 실천적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형기에 들어와 전향서를 제출하고 카프 해산을 맞은 1935년 5월 이후, 게다가 중일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일제총독부 정책이 파쇼기로 들어선 1937년 이후, 임화는 자기정체성의 해체와 좌절감과 실존적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지식인 임화에게 탈식민적 현실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아젠다가 되었을 것이었다.

이 과제는 우리들 앞길에 산같이 쌓인 잡다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할 문화적, 창조적인 실천의 생[산]적 문제와 밀착되어 있다. <중략>

현실생활의 역사적 운동의 조류 위에서 자기 스스로를 전방(前方)으로 이끌

27)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조선영화발달소사』, 『삼천리』, 삼천리사, 1941, 6, 201면.

통일된 예술적 x[정]치적인 실x[천]의 절박한 육체적 필요만이 문학사적 제 문제를 정당히 취급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금일에 있어 문학사적 문제란 실로 완전한 한 개의 실천적 과제이다.²⁸⁾

따라서 임화는 전향 이후에도 여러 비평을 통하여 일제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리고 그 살벌한 파쇼기에 이러한 비판과 저항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글쓰기가 의도된 모호성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일제에 순응하거나 협조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었지만, 그의 글쓰기는 오히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열을 거치며 수행되는 교묘하고 우회적인 저항 전략이었다.

예술성의 옹호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치성을 거부할 자세를 갖춘 것은 일견 민족주의를 내용으로 삼던 종래의 민족문학이나 맑시즘을 내용으로 삼던 종래의 프로문학의 본질과 모순하는 것과 같으나 이 시기의 특징은 문학의 비정치성의 주장이 하나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문학이 됨을 거부하는 소극적 수단이었다.²⁹⁾

비정치성도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위의 주장에 주목해 본다면 임화의 전향 역시 바바의 ‘교활한 공손함’으로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바바의 ‘흥내 내기’는 적응이나 동화의 문제가 아니라 변장, 위장, 위협의 문제로, 그것은 결국 지배 권력을 교란하고 그 중심을 흔들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물론 임화의 전향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전향으로 황국신민을 흥내 내는 비평가가 되어 ‘탈이식문화론’을 개진했던 그의 양가성 역시 ‘교활한 공손함’과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맞서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던 임화가 카프 해산 이후 ‘정치적 무의식’ 혹은 교묘한 정치적 의식으로 당시의 정국과 문화에 대응하고 저항했던 전형기의 비평적 산물이 바로 ‘탈이식문화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나프(NAPP)의 직접 영향과 일본을 통한 소련 라프

28)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규찬, 『조선신문학사론 서설』, 『문학사』, 2009, 377면.

29) 앞의 책, 502면.

(RAPP)의 간접 영향을 받았던 카프 서기장 임화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 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이식’된 마르크시즘으로 오히려 일제 식민지 상황을 타개하려 했던 임화였기에, 전향 이후 오히려 더 교묘하게 의도된 저항의 글 쓰기를 모색했을 것이었다. 이렇듯 임화의 비평은 외래문화의 ‘이식’ 위에서 ‘탈이식’을 추구했던 임화의 삶과 일치되었던 것이고, 비평과 일치된 임화의 삶은 ‘탈이식문화론’의 형성 배경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5. 탈식민주의 시대의 ‘탈이식문화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식문화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임화나 비판을 가했던 후대 문학사자들이 모두의 주장은 일제 침략에 의한 민족사의 대전환기에 근대문학을 맞이한 한국문학을 정립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문화적 자각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과감한 선언이기도 했다. 특히 임화의 ‘이식문화론’은 식민 제국주의 문화에 예속되지 않으려 저항했던 ‘탈이식문화론’이었다. 문화에는 전통적인 요소와 외래적인 요소가 병존해 있고, 그것들은 상호 경쟁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변증법적으로 ‘혼화’해 나가는 것임을 임화는 간파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식-전통-문화 창조’라는 식민 문화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탈이식문화론’은 오히려 ‘이식문화론’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왜곡되어 왔다. 이것은 후대 문학사자들이 민족주의라는 미명 아래 자행한 또 하나의 가혹한 문화적 억압이고 탄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지배/피지배, 식민자/피식민자, 주체/타자, 서구/전통, 중심/주변, 순응/저항, 전유/폐기, 친일/반일 등의 이항대립적 관계로만 인식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항대립적으로 도식화된 틀은 또 하나의 문화 식민주의의 영토가 될 수 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야말로 또 다시 개인을 억압하고 민족의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근대성 논의에서 민족 담론과 거대 서사는 중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탈근대를 맞이한 지금 세계화의 흐름으로 민족 담론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민족 담론을 무장 해제시킬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분법적 구

도와 도식에서 벗어나 주체와 타자를 뒤섞는 문화적 ‘혼화/혼종성’을 더 바람직한 문화 기제로 사용해야 한다. ‘혼화/혼종성’이란 결코 민족적 주체의 훼손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자의 피를 수혈한 ‘혼화/혼종성’이 후기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지배국의 문학인으로서 식민제국에 대한 문화적 저항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모색하였던 임화의 ‘혼화/혼종성’의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이식문화론’이라는 선정적인 이론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왜곡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임화의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지양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고, 단지 ‘정’에 해당하는 진술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식문화론’이라는 오명을 덧씌워 마녀사냥 식으로 재단해 버리는 일은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예리하게 시대성을 선취한 빛나는 정신적 유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민족사의 부침 속에서 이론과 실천, 문학과 짧은 삶을 자신의 온몸으로 일치시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임화의 ‘탈이식문화론’을 폄훼하는 것은 후기 식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정신의 식민화’를 ‘이식’하게 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신두원,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임규찬, 『문학사』, 소명출판, 2009.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조선영화발달소사』, 『삼천리』, 삼천리사,
1941, 6.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9.
나병철, 『근대 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제도로서의 한국 근대문학과 탈식민
성』, 소명출판, 2008.
방민호, 『임화의 ‘이식문화론’ 재고』, 서울대학교, 2002.
백철, 『신문학사조사』, 친구문화사, 2003.
성기조, 『한국근대문학의 전통논의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1984.
신승엽,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2000.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한길사, 2011.
조동일,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66,
여름호.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56.
패트릭 윌리엄스, 피터 차일즈, 김문환,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국문초록】

이 글은 우리의 근대문학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쟁을 야기해 온 임화의 소위 ‘이식문화론’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임화의 문화사는 임화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민족문학적 관점의 문학사가들에 의해 몰주체적 ‘이식문화론’이라는 오명으로 불리어 왔다. 더구나 한때 카프의 서기장으로 좌익 이데올로기의 선봉에 서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자 임화의 문학사가 ‘이식문화론’의 기원으로 자리 매겨져, 친일 문학을 하다가 해방 후 문단 중간과 문학을 자처하면서 제3노선을 걸어왔던 백철, 우익 이데올로기의 선봉에 서서 문단 해계모니를 장악했던 조연현의 문학사와 동일한 계보와 범주에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근대문학사적 시각으로 ‘이식문화론’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화, 백철, 조연현의 ‘이식문화론’의 계보와 범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식문화론’을 비판하는 데서 자신들의 문학사를 출발시키고 있는 김윤식·김현, 조동일의 민족문학적 주장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임화의 ‘이식문화론’에 나타난 탈식민성을 통해 그 실체가 ‘탈이식문화론’임을 밝히고, 임화의 ‘탈이식문화론’과 호미 바바의 ‘혼종성’ 담론과의 유사성을 찾아보았다. 더불어 임화의 비평적 사례와 그의 실천적 삶 역시 ‘탈이식문화론’의 근거와 형성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식-전통-문화 창조’라는 식민 문화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임화의 문화사가 변증법적 ‘혼화(混和)’임을 밝히고, 탈식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재해석, 재평가된 임화의 ‘탈이식문화론’을 탈식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적 대안으로 삼고자 하였다.

주제어: 임화, ‘이식문화론’, 탈식민성, 탈식민주의, 백철, 조연현, 김윤식·김현, 조동일, 호미 바바, ‘혼종성’, ‘탈이식문화론’

【Abstracts】

Post-coloniality in the ‘Theory of Culture Implant’ of Im-hwa

– Focusing on the ‘Hybridity’ Discourse of Homi K. Bhabha

Kim, Hye-won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reinterpret and revalue so-called ‘theory of culture implant’ of Im Hwa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when it comes to Korean modern literature. So far the literary history of Im hwa has had a stigma of ‘theory of culture implant’ with a lost identity by literary historians who had the perspective of national literature, whether he intended or not. Besides, since Im Hwa, once a Marxist, who stood in the vanguard of the left ideology as a secretary of KAPF, has been evaluated as the origin of ‘theory of culture implant’, he has been discussed in the same genealogy and category as Baek Cheol, once pro-japanese writer and then chose the third line, setting up for a neutral of the literary world after Liberation, and Jo Yeon-hyeon, who held the hegemony of the literary world standing in the vanguard of the right ideology.

Thus this report begins, in the perspective of modern literary history,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genealogy and category of Im Hwa, Baek Cheol and Jo Yeon-hyeon, who have been discussed in the same context under the name of ‘theory of culture implant’. Then I investigated the assertion of national literature of Kim Yun-sik · Kim Hyeon and Jo

Dong-il, who started their literary histories by criticizing the ‘theory of culture implant’. Finally I tried to identify the post-coloniality in the ‘theory of culture implant’ of Im Hwa and prove that its identity is the ‘post-theory of culture implant’, and searched for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heory of culture implant’ of Im Hwa and the hybridity discourse of Homi K. Bhabha. And I suggested that the ‘theory of culture implant’ was based on the critical examples of Im-hwa and had the formative background of practice throughout his life.

Therefore I tried to prove that the literary history of Im Hwa, a resistant discourse against the colonial culture, that is to say ‘Implant-Tradition-Culture creation’ is the dialectic mixture, and by using the new paradigm of post-colonialism, suggested revalued the ‘post-theory of culture implant’ of Im Hwa as a cultural alternative for people living in the era of post-colonialism today.

Key words : Im Hwa, ‘theory of culture implant’, post-coloniality, post-colonialism, Baek Cheol, Jo Yeon-hyeon,

Kim Yun-sik · Kim Hyeon, Jo Dong-il, Homi K. Bhabha, ‘hybridity’, ‘theory of post-culture implant’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